

담양 모든 주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타 지역서 사고 당해도 보험 혜택 공공자전거 이용 관광객도 보상

담양군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자전거는 물론 자전거 소유 주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일 지난 달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담양 관광객 중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을 위로금을 지급하는 '주민 자전거보험'과 '공공자전거보험'에 일괄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담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담양을 찾는 관광객도 담양군청과 12개 읍면사

무소에 비치·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부상을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민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운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3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고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밖에 벌금(최고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원)도 심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자전거보험'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후유장애 시 1000만원,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지난 11일 설 연휴 마지막날 담양군 관광제임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관광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길 등 관광 명소 인근에서 자전거 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전거연합회 등도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산강 자전거 길과 자전거인프라 기반구축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강진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태양광 시설

포스코와 계약... 다음달 착공

강진군이 화물운송과 물류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강진 화물차 동차 공영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상부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주)포스코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남도로부터 전기발전 허가 받고 한전과 전용선로 협의를 마쳐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10만㎡의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 지상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용량은 5MW/h에 달한다.

이 발전용량은 동시에 약 1600가구

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첫째 1억 8000만원과 매년 1억여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한다. 15년이 지나면 모든 시설물이 군으로 반납돼 전기생산량 전체가 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동안 강진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는 100여 개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관내 차량 1050여 대와 관외 차량 800여 대가 사용 중이다. 또 비료 공장, 팔레트회사, 오리가공 운송업체 등이 상주해 배송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강진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설 사용료는 연간 차고지 m당 1000원, 기타 운송 사무실은 32㎡ 1실당 80만원, 물류동은 50㎡ 1실당 90만원 등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고흥 우주항공시설 관광객 폭주

나로호 성공 여파... 설연휴 1만명 다녀가

지난달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고흥군 우주항공 관련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들 시설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편의시설 설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13일 "이번 설 연휴 3일 동안 우주과학관, 우주발사전망대, 우주천문과학관 등 우주과학체험시설에 관람객 1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설 연휴 동안 4850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나로호 성공 발사 행사를 치렀던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설 연휴 3일간 2000여명이 다녀가 고흥우주항공 중심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이번 설 연휴동안 우주과학체험시설의 관람객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을 꼽았으며, 나로호 발사로 인한 고흥 인지도 지속적 상승과 나로호 성공발사로 인한 국민들의 호기심과 방문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지난해 10월26일 개관한 우주발사전망대.

고흥군은 가족놀이방, 크로마키포토존, 옥외전망대, 텐테이블 등을 갖춘 우주발사전망대를 미르마루길과 연계, 계절별 관광테마로 꾸밀 예정이다. 우주발사전망대에는 지난해 10월26일 개관 이후 1만4000여명이 다녀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농촌 어린이 정서함양 큰 도움"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 장흥서 첫 공연

극단 연우랑이 주관한 '2013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이 장흥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장흥군은 13일 오전 10시 장흥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2013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 첫 작품으로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이란 연극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장흥지역 어린이 집과 유치원 원생 150여명이 관람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은 별주부의 후속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웅공에서 살아 돌아온 토끼가 자신을 구해준 자라가 웅공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두꺼비 도사를 찾아가 신비의 영약을 구해 자라와 함께

용왕의 병을 고친다는 내용으로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이모(6)군은 "자라와 토끼의 우정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 친구들과 재미있게 봤다"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부모님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래동화와 어린이 연극, 인형극을 '2013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이란 프로그램으로 매달 한차례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훈 장흥군수는 "어린이 연극이 농촌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이명훈 장흥군수와 극단 연우랑 출연진들이 13일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 공연 직후 어린이 관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지리산·월출산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봄철 산불 예방 16일~4월30일까지

지리산, 월출산 등 지역 내 국립공원 내 일부 탐방로가 오는 16일부터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13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노고단~천왕봉 구간의 종주능선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탐방로, 보존의 가치가 높고 야생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은 입산이 통제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탐

방로는 개방한다. 전체 탐방로 230.7km 중 통제 구간은 128.6km다.

산불통제기간에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행위자에게는 최소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

료를 부과한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도 같은 기간 노고단~천왕봉(25.5km), 백두동~세석평전(6.5km), 쌍계사~삼신봉(9km), 삼도봉삼거리~반야봉~쟁기소(8.5km) 등 26개 구간 166.9km를 통제할 예정이다. 개방탐방로는 칼바위~장터목(4km), 고기리~고리봉(3.2km), 뱀사골야영장~와운길(0.8km), 성삼재~노고단 정상(5.4km) 등 25개 구간 63.8km다.

영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도 산

성치~광암터(1km), 무위사~미황재(2km), 용암사지~홍계골(2.8km) 등 모두 3개 구간 5.8km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홍도 1구~2구 구간(동백숲~제2전망대 1.6km 구간 개방)의 출입을 막을 방침이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영암=문병선기자 moon@

순천정원박람회 SNS서포터즈 모집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3일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SNS서포터즈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원박람회 SNS서포터즈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동자 중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정원박람회 SNS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콘텐츠 소통, 공유, 확산 및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순천=김은경기자 ejkim@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